

보성 차문화 멀티플렉스 '붓재' 핫플레이스 인기

방문객 작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증가 시그니처 메뉴 개발·볼거리 제공 등 요인

보성군은 차문화 멀티플렉스인 '붓재' 방문객이 작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말 기준 '붓재' 방문객은 4만 3천 명이다. 보성군은 '붓재' 활성화를 위해 그린다향(카페)에 빈백 소파를 마련하고, LED 전광판을 통해 카페와 마켓을 홍보하는 등 다양한 변화를 시도해왔다.

오는 8월 6일부터는 작은 음악회도 개최될 예정이다. 공연은 6, 13, 14, 20일 등 총 4회 이루어지며, 13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된다.

또한, 차 전문 카페인 '그린다향'만의 매력 향상을 위해 '녹차팻빙수', '그린티에이드', '달차라떼', '그린티스무디' 등 다양한 시그니처 메뉴를 개발했다.

특히, 고객 유치를 위해 건물 외벽

에 'cafe' 사인물과 '미디어 글라스'를 설치해 영상과 볼거리 제공 등이 방문객 증가의 요인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군 관계자는 "붓재를 비롯한 한국 차박물관, 울포해수욕장센터, 다향아트밸리 등 보성 관광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새로운 관광 콘텐츠 발굴과 방문객 유치 마케팅 다각화 등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차문화 멀티플렉스 '붓재'는 연면적 4만9천430㎡ 규모로 ▲1층에는 보성의 역사와 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보성역사문화관 ▲2층에는 차 전문 카페 그린다향과 보성 차 관련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그린마켓이 입점해 있다.

/강종수 기자



보성군은 차문화 멀티플렉스인 '붓재' 방문객이 작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 7월 말 기준 '붓재' 방문객은 4만 3천 명이다. 보성군은 '붓재' 활성화를 위해 그린다향(카페)에 빈백 소파를 마련하고, LED 전광판을 통해 카페와 마켓을 홍보하는 등 다양한 변화를 시도해왔다. /보성군 제공

진도군, 청소년 100원 버스

진도군이 청소년 100원 버스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 1일부터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운 가계 부담과 학생 교통비 부담을 절감하고 대중교통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청소년 100원 버스' 제도를 시행했다.

진도군에서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초·중·고등학생 등 만 18세 이하 청소년은 거리에 상관없이 모두 100원 요금을 적용받게 된다.

진도군과 관내 3개 버스업체는 지난 7월말 업무협약을 통해 학생 요금을 100원으로 낮추는 대신 요금 인하에 따른 손실 보상을 '농어촌 버스 단일 요금제 손실보상금 산정' 용역을 통해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청소년 100원 버스는 민선8기 김희수 진도군수 공약사항으로 농어촌 학생 교통비 부담 절감 등 교통 복지 향상이 기대된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100원 버스 시행으로 청소년들의 버스비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대중교통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현일 기자

해남군 복합뮤지엄파크 건립

역사관·미술관·야외공원 등 조성

해남군이 해남의 역사와 문화, 예술을 한자리에 담은 복합뮤지엄파크를 조성한다.

군은 민선8기 문화예술분야 중점 추진과제로 오는 2025년까지 해남읍 연동리에 해남역사관과 미술관, 야외공원 등을 갖춘 복합뮤지엄파크를 건립한다.

사업비 350억 원을 투입하는 이번 사업은 그동안 꾸준히 필요성이 제기돼온 미술관과 역사관 등을 조성해 해남의 유무형 문화예술 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존·전시하는 복합문화시설로 운영하게 된다.

역사박물관은 해남군에서 발굴된 역사유물을 보관하고 전시, 연구하며, 미술관은 해남을 대표할 수 있는 작품을 보관·기획·전시하게 된다. 야외시설은 문화행사 놀이와 체험을 즐기고, 정원과 전시공간이 어

우러진 공간으로 조성된다.

장소는 해남읍 연동리로, 호남 예술의 뿌리인 고산 윤선도유적지는 물론 땅끝순례문학관, 백련재 문학의 집, 고산유물전시관 등이 소재해 있어 해남 문화예술 시설이 집약된 랜드마크로 시너지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해남군은 군의회와 지역문화예술인, 역사학자를 비롯한 주민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조성사업을 구체화 해나가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9일에는 해남복합뮤지엄파크 건립 추진위원회 출범식을 가졌다. 오는 9일에는 주민 공청회를 군청 대회의실에서 갖는다.

해남군은 앞으로 타당성 용역을 통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작품 및 유물 목록 확보 등을 거쳐 내년 문화체육관광부 사전평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윤규진 기자

고흥군, 아동 오케스트라 지원사업 운영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클래식 음악 교육 기회를 제공해 음악을 통해 꿈을 키우고 자존감을 키워주기 위해 고흥군 드림오케스트라 사업을 (사)전남문화예술협회에 위탁해 주 1회 이상 운영한다고 밝혔다.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방학 중에도 고흥동초등학교 연습실에 나와 연주 연습에 한창이다. 지난 27일에

는 전라남도 꿈키움 드림오케스트라 출신 대학생 5명으로 구성된 드림 콰텟(Dreams Quartet)을 초청해 꿈키움 오케스트라 연주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꿈키움 드림오케스트라는 음악을 사랑하고 관심이 있는 아동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기존 서비스를 제공받던 아동은 중학생이 되어도 희망하는 경우 연속 지원 받을 수 있다.

올해는 바이올린 1·2반, 비올라, 첼로(콘트라베이스) 합주반을 모은 미 지휘자 외 4명의 전문 강사들이 주 2회 지도해 왔으며, 8월부터는 월요일마다 수업이 이루어진다.

군 관계자는 "꿈키움 드림오케스트라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적으로 쉽게 접하기 힘든 클래식 연주를 통해 아동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유빈 기자

장흥 물축제 행사장 재정비

장흥군청 공무원들이 지난 1일 비에 젖은 물축제 현장 재정비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이날 물축제장 환경정비에는 김성 장흥군수를 비롯한 장흥군 공무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참가 공무원들은 밤새 내린 비로 축제장 곳곳에 생긴 물웅덩이를 제거하고 흘러내린 토사를 정리했다.

축제가 3일째가 되면서 구석에 버려진 쓰레기 정리와 안전시설물 점검도 실시했다.

장흥군청 공무원들은 3년 만에 열리는 물축제의 성공을 위해 축제 시작 전부터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역 상가와 군민을 대상으로는 친절 캠페인을 전개하며 물축제 손님맞이에 정성을 쏟았다. /백두연 기자

완도군, 미국 LA서 수산 식품 판촉전 개최

완도군은 16일까지 미국 대형 유통 체인인 한남체인 내 전라남도 상설 판매장에서 '2022 전라남도 완도군 수산 식품 해외 판촉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판촉전은 미국 LA 한남체인 플러튼점과 토렌스점에서 동시에 진행되며, 판촉전 개최를 위해 군은 전북 뷔융밥, 해조 컵 국수 등 약 11

만 불 어치 물량을 수출했다.

판촉전에 참가한 기업은 누리영 어조합법인, 완도사랑S&F, 완도바다시품 등 3개소이다. 참가 기업은 완도군이 주최한 '가정간편식 온라인 수출 상담회'와 '온오프 하이브리드 수출 상담회'에서 미국 현지 바이어가 직접 선택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물가 상승세가

이러지고 경기 둔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 시장 판로를 확대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완도산 수산물로 만든 가정 간편식이 LA를 시작으로 북미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초석을 다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완도 특산품이 세계인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꾸준히 해외 판촉행사를 개최하겠다"라고 밝혔다. /백나영 기자

